

강진군, 본격 보리수매 시작

강진군이 지난 18일 대구면을 시작으로 28일 신진면 성진면까지 본격적인 보리수매에 나섰다.

군의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보리재배 면적은 전년도 629ha에서 올해 1천188ha로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보리 파종기와 생육 시기에 최상의 기상여건으로 생산량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강진군에서는 40kg기준 15만7천110포대의 보리가 생산 예정이며, 이중 15만1천36포대는 농협, (주)보식품, 우정정미소, (주)일화를 통한 계약재배 물량으로 매입 예정이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대구면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



예상되는 가운데 계약재배 외 물량 6천75포대가 농가들의 고민이었으나, 농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보리 전량을 매입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20일 군동 영포창고 보리수매 현장에서 "보리농사가 종년임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생산량 폭증으로 과잉 생산되어 가격하락에 걱정하고 있는 농가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농식품부에 조속한 보리 전량매입 계획을 요청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신안군, 박지도에 퍼플색 쓰레기 수거박스 2대 배치

신안군은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연일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청정 신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박지도에 퍼플색 쓰레기 수거박스를 2대 배치했다.

특히, 2015년 가고싶은 섬으로 지정되어 퍼플섬으로 탈바꿈해 주요 관광지인 박지도, 반월도에는 2019년 21일 퍼플색 쓰레기 수거박스를 2대 배치했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거주인구 130여명의 작은 섬인 박지, 반월도에는 1일 평균 1,500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어 이로 인한 쓰레기 수거문제를 해결하고, 퍼플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퍼플색으로 쓰레기 수거박스를 제작하여 박지도에 배치하였다.

완도군, 도서 주민 위한 '찾아가는 여권 발급서비스' 운영

완도군은 도서 지역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배를 타고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여권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여권 발급서비스'는 관내 도서 지역의 학교와 마을 등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 여권을 발급하고 여권 교부도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여권 발급 시스템 상 지문 조회 과정이 생략되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에는 법정 대리인 및 친권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찾아가는 여권 발급서비스'는 6월 18일 청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내 6개 도서(금일, 노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 여권을 발급하고 여권 교부도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9월부터 매주 화요일(18:00~20:00) 여권 창구를 확대하는 '화요일 여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 민족도를 높이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목포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기관

목포시는 지난 20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2018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통합성과대회'는 장애인 재활서비스 수행실적 우수성, 자원활용 우수성, 사업운영 노력정도 등 총 7개 항목에 대하여 한 해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



관을 결정한다.

하당보건지소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건강보건관리 및 사회참여 사업을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보건 관리, 사회참여,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발생 예방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꽃과 향기 가득 '氣찬뫓길 향기숲' 조성

영암군은 2018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기찬뫓길 향기숲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호남의 소금강(小金剛)이라 불리는 월출산 기슭을 따라 지상의 氣를 모아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국으로 조성된 기찬 뫓길의 숲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월출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비경을 재조명할 수 있는 명품 탐방로로 재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금년까지 뽕, 산딸, 산수유, 산뽕, 복서류 등 꽃과 향기가 가득한 자생수종 위주로 3만주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이후로는 야생화 군락지 등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맺힘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해남사랑 상품권, 판매액 12억원 돌파

해남군이 지난 4월 17일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 상품권이 발행 2개월 만에 총 판매액 12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전남도내 지자체의 1분기 평균 판매액이 6억 7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해남 사랑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꾸준히 늘어 2000개소를 넘어섰다.

군은 상품권 발행 전부터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내 점포를 직접 방문해 가맹점을 모집 하는 한편

상품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상품권 사용 가맹점 2008개소가 지정됐고 현재까지 꾸준히 가맹점 가입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해남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해남사랑 상품권은 1만원권 5000원권 3000원권 1000원권 총 4종으로 전남 최대인 연간 15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오는 6월말에는 상반기 농민수당이 전액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진도군,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진도군이 최근 진도실업고등학교에서 17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구현상 등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의 인구교육 전문강사 오국희 씨를 초청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진행했다.

다.

인구교육 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은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부모, 비혼출산 등 다양한 가정을 수용하는 프랑스, 스웨덴 등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가정형태의 다양성과 일·삶의 균형, 양성평등의 중요성 등 다양한 분야로 강연했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 관계자는 "한부모, 비혼출산 등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와 문화 등의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양파사주기 대대적 소비운동 전개

양파 주산지 무안군이 중·민생종 양파 수확기를 맞아 산하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양파 소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무안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양파사주기 운동에 동참하여 양파 5,211박스(45.7톤)를 구매해 21일 현장에서 배부했다.

이와 함께 우체국 소량내 온라인 판촉으로 300톤 판매 협약을 체결하여 약 6만 박스의 양파를 판매하고 홍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관내 유관기관인 목포대학교, 무안경찰서, 무안교육지원청, 광주은행 무안지점, 광주전남연구

원, 광주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광주경찰서 등에서 양파 사주기 운동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무안양파 사주기 운동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양파생산은 전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다소 줄었지만 기후와 강우량 등이 생육조건에 도움을 주어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 15% 정도의 과잉생산이 예측되고 지난 3년간 저장 양파가격이 불안정하여 유통인들이 양파 장기저장을 꺼리고 소규모 직거래로 돌아서고 있어 예년에 비해 포진거래도 끊어져 양파 시장 전반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